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학과 32162566 안찬웅입니다. 자기소개 얘기를 처음 듣고,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혹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모두 작성해보려 합니다. 저는 1998년생 25살 안찬웅입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대학교 1~2학년 시절에 학원 선생님의 꿈이 있어 도전했었고, 그 업계가 생각보다 몹시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인 유튜버의 꿈이 있었고 실제로 도전해 많은 채널에 출연하며 즐거움을 느꼈지만, 이걸 직업으로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언제 인기가 식을지 무서웠고, 실제로 군대에 갔다 온 뒤 다시 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직업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개발자의 꿈을 이루어서 유튜브에 자주 출연해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현재 꿈은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30대, 그리고 그 이후에 꿈은 소프트웨어 공학자이고, 그리고 기업 CEO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코딩할 때도 좋지만 어떤 것을 불편해할까? 혹은 필요해서 할까, 이러한 기기에 어떤 걸 추가하면 더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무를 PM 준비할까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는 백엔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해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충분히 느낀 후에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수업에 대한 의견

정말 신기하게도, 송영산 교수님, 이재동 교수님, 그리고 이상범 교수님 또한 코딩을 잘하지 못해도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혹시 코딩을 잘해서 취업하더라도 엔지니어적인 부분까지 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세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범 교수님의 첫 수업을 듣고 연구는 충분히 했고,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집중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학부 연구생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4학년은 뽑지 않는다고 하셔서 조금 슬펐습니다. 제가 4학년 1학기이지만, 개발을 공부한 지 오래되지 않은 4-1 재학생도 학부생에 지원할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만약 대형프로젝트를 하고 어느 정도 react, nodes 같은 stack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야 지원할 수 있으면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코딩을 진심으로 공부한 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님께 학업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팀플레이 대한 의견

2018~2019년 군대에 있었고, 2020~2022년 1학기까지 비대면이어서 혼자 들어온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팀을 랜덤으로 섞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제 얼굴사진은 밑에 첨부했습니다.

